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 (Numbers)

주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여, 내가 보기에 옳은대리가 아니라 그분이 명하신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 1. **채비** (1-10): 시내산 앞 시내광야에서 지파별로 계수하고 약속의 땅으로 갈 채비를 하였다.
1차 계수 (진의 조직) (1-4) / 진의 성별 (5-8) / 진의 이동 (9-10)
- 2. **반역** (11-14):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반역하여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원망 (11) / 비방 (12) / 정탐 (13-14)
- 3. **방황** (15-25): 40년간 방황하다 요단 동편(모압평지)에 이르기 전에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다.
제사 규례 (15) / 고라 반역 (16-19) / 여정 재개 (20-25)
- 4. **신세대** (26-36): 광야에서 살아남은 신세대를 계수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 분배할 준비를 하였다.
2차 계수 (26-27) / 봉헌 규례 (28-30) / 분배 준비 (31-36)



*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헤브론교회의 표어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

*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 (창 49:8-12)는 장차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선봉 역할을 하는 것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왕이 출생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신명기 (Deuteronomy)

주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증거로서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생활(구별된 삶)을 해야 한다. 세속도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1. 회고 (1-4):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한 역사를 회고한다.

광야 방황 (1) / 요단 동편 (2-3) / 순종 권고 (4)

2. 율법 (5-26):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

기초 (5) / 원리 (6-11) / 조항 (12-26)

3. 회복 (27-30):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을 선포하며 순종을 권고한다.

선포식 (27) / 복과 저주 (28) / 복과 저주의 갈림길 (29-30)

4. 승계 (31-34):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명을 위임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후계 (31) / 유언 (32-33) / 죽음 (34)

* 신명기12-26장은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상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십계명(5장)	상세 조항(12~26장)
1. 다른 신	이방 민족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12:29~31).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포하는 자는 죽이라(13:1~18).
2. 우상숭배	바른 예배: 이방 우상과 제단을 헐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12:2~28).
3. 여호와와의 이름	여호와와의 성민으로서 정결함을 지키라(14:1~21). 여호와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십일조를 드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14:22~29).
4. 안식일	안식년 면제(15:1~11), 종(15:12~18), 초태생 제물(15:19~22). 유월절(16:1~8), 칠칠절(16:9~12절), 무교절(16:13~17).
5. 부모 공경	재판장과 지도자의 책임(16:18~20), 종교적 문제 재판(16:21~17:7), 난해한 재판(17:8~13). 왕(17:14~20), 제사장과 레위인(18:1~8), 선지자(18:9~22). 패역한 아들 사형(21:18~21) [처형된 시신 처리(21:22~23)].
6. 살인	도피상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자의 피난처(19:1~13). 전쟁: 징집 면제(20:1~9), 지경 밖 나라와는 화친하라(20:10~20).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한 속죄(21:1~9).
7. 간음	결혼: 포로 가운데 아내를 얻은 자(21:10~14), 두 아내를 둔 사람의 장자 상속권(21:15~17), 순결의 법과 그 외(22:13~30). 거룩한 총회(23:1~8), 거룩한 진영(23:9~14).
8. 도둑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19:14). 이웃의 길 잃은 가축을 되찾아주지 말라, 그 외(22:1~12).
9. 거짓 증거	두세 증인을 놓고 재판하라(19:15~21).
10. 탐심	이혼과 재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등(24:1~25:12). 공정한 저울추(25:13~16). 토지 소산의 만물과 십일조(26:1~15).

*** 신명기의 6가지 가르침**

- 1)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 2)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 3)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 4) 여호와의 명령의 핵심은 결국 시내산 언약(십계명)이다.
- 5)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에 제한된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을 통해 장소성을 뛰어넘는다.
- 6)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보존된다.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의 흐름

창1-11: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퇴행

창 12-50: 족장들에게 자손(씨)과 땅의 약속을 주심

출애굽기 / 레위기: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언약을 맺으심

민수기 / 신명기: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심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함

사사기: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서 가나안 족속에게 시달림

여 호 수 아 (Joshua)

주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에 마침내 허락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극치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전술과 전략을 의지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의지함으로써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1. **진입** (1-5):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진입하였다.

진입 준비 (1-2) / 요단 도하 (3-4) / 언약 의식 (5)

2. **전쟁** (6-12):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였다.

중부 (6-8) / 남부 (9-10) / 북부 (11-12)

3. **분배** (13-21):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정착했다.

요단 동편 (13) / 유다, 요셉 (14-17) / 남은 지파 (18-21)

4. **권고** (22-24):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고하고 언약을 갱신했다.

요단 동편 지파들 권고 (22) / 고별설교 (23) / 언약 갱신 (24)

*** 여호수아서의 모형론적 의미:** 가나안은 투쟁하여 정복할 대상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거의 전투가 없었다. 따라서 가나안은 평안을 누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 얻어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이미" 안식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대적과 싸워야 하고 우상종교와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가나안은 구원 받았으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성도의 이중적 상태를 보여준다.

*** 여호수아의 최후 선언,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인간의 삶은 선택의 삶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생명과 번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세상적인 번성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신다.

* **도피성:**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살인을 범하게 된 자가 '피의 보수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도피하여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해주신 도시를 뜻한다.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시점의 모든 과실 살인자의 죄책이 공식적으로 사해지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도피성은 범죄자를 보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대제사장은 (비록 자연사이기는 하지만) 과실 살인자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망의 심판에서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책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예표(미리 보여줌)한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신 '모형'의 좋은 예가 된다.

우리 헤브론교회도 모든 죄인들이 찾아와 죄사함받고, 보호받고, 변화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